



물가 안정으로 경기부양책 추가 실시 전망

이소양 연구원

■ 중국의 6월 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음.

- 계절 전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야채 및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대비 각각 26.9%, 18.0% 하락하면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의 3.0%보다 0.8%p 낮아진 2.2%로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.
- 대외 수출 둔화, 국내 소비 수요 부진, 석유 가격 하락 등으로 비철 금속, 철 금속, 화학 원료 가격이 전월대비 각각 7.6%, 6.7%, 5.0% 하락하면서 6월 생산자물가는 2.1% 하락,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.
- 한편,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.3% 상승한 반면,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.6% 하락함.

■ 중국사회과학원 양즈용(楊志勇)은 물가 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.

- 6월 중 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50.2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하락하여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.
- 지난달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.2%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저준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, 세금개혁안 시범시행 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함.
- 그러나, 지난 6월 중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9개월 만에 처음 상승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재현할 우려도 제기함.

(신량망, 하현망, 7/12 등)